

### (1) 차례와 성묘

추석이 되면 빈부를 막론하고 추석의 대표적인 음식인 송편을 빚는다. 새로 난 쌀로 송편을 빚고, 온갖 과일을 장만하여 조상께 차례를 올리는데 어느 명절보다도 풍성하게 장만한다. 또한 추석을 전후하여 잘 익은 벼나 수수, 조의 이삭을 한 줌 잘라서 방문이나 기둥 위에 걸어둔다. 이것을 ‘올개섬리’라고 하는데 이 역시 천신하는 의미이며, 때로는 간단한 음식을 장만하여 상을 차리기도 한다. 새벽녘에 차례를 지내고 아침녘에는 성묘를 한다.